

여호와이레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

창22:14

미국 다녀온 이후 창세기 집필, 거의 다 마무리하였다. 1-11장은 절마다 상세히 강해
12-15장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강해

아브라함의 생애

- 아브라함 언약과 땔기세택
- 아브라함의 칭의: 믿음과 할례
- 믿음과 행위: 로마서와 야고보서 오해 풀기
- 여호와 이레
-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와이레만 설명하면 아브라함 생애에서 중요한 그들은 다 설명한다.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의 여호와 이레, 이 호칭 안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압축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는 ‘주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보시고 준비해 두신다.

아브라함이 이 호칭을 쓴 것은 단순히 이삭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날의 감격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믿음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후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단순한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제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역사적 배경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
드 근방 지역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 창12:1-3

창세기 12장 1-3절에 기록된 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이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75세 때의 일이었다(창 12:4). 창세기 15장 5-7절에는 아직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들을 보여 주시며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당시 풍습을 따라 하갈을
취하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3). 이스마엘에게서 결국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 이후 13년을 더 기다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6-8절에
기록된 민족과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된다.

이렇게 75세에서 100세까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다. 그 과정 중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씨가 없는데도 그는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
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

증거이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약 45년이 지난 후,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

시험과 순종

창세기 2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었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은 이삭뿐이었기 때문이다. 번제 헌물이란 짐승을 죽여서 온전히 태워 몸 전체를 드리는 헌물이다.

이 시점에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20세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아브라함은 120세쯤이었다. 청년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함께 데리고 간 청년 둘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막을까 봐 산 아래 남겨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한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22장 6절**은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다고 기록한다. 청년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른 것이다. 수천 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요 19:17). 아들이 나무를 지고 죽음의 산을 오르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이미 그려져 있다.

산을 오르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는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내 아들이야,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라는 이삭의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청년의 물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양에서 어렵듯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이르면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갔고”라는 예언으로 그 답이 한결 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라고 외칠 때 그 답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삭의 질문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갈보리에서 비로소 그 완전한 답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5절에서 아브라함이 청년들에게 한 말을 주목해야 한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는 자기와 아이가 다시 온다고 말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만일 이삭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린다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7-19절에 기록되어 있다.

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8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이려고 간 그 상태를 통해서 모형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약 2:23).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손을 들어 칼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나타나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잡아 번제 헌물로 드리게 하셨다. 이것이 대신 속죄이다.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하셔서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이 사건 안에 이미 갈보리의 복음이 완벽한 모형으로 새겨져 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는 히브리어로 '보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순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보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내다보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태어나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래를 '앞을 내다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아는 것과 미래를 아는 것이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

이 점에서 '보다'는 개념은 곧 '미리 보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영어에서도 단순히 본다는 'see'와 미리 본다는 'foresee'가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생긴다.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영어로 'foresight'(미리 봄)라 하고, 그렇게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을 'provision'(예비)이라 한다. 두 단어 모두 라틴어 'videre'(보다)에서 파생되었으며, '본다'는 행위가 곧 '준비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바로 이 'provision', 곧 예비하심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22장의 핵심이다. (*)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라고 말했다 할 때, 그 히브리어 표현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미리 보시리라."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예비하신다는 의미이다. 14절의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라는 말씀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개역성경은 이를 '준비하리라'로 번역하였지만, 본래 의미는 '보리라'이며, 바로 그 하나님의 '보심'에서 '예비하심'이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다. 이 개념은 구약의 '선견자'라는 호칭과도 연결된다. 구약 시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선견자'라고 불렸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선견자를 찾아가 미래를 알아보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호칭이 점차 '대언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고, 미래를 말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 호칭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기상 9장 9절**에 나타난다.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보심에 따라 정확하게 예비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다.

모리아 산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창 12:8; 13:4). 그러나 구약 성경이 보여 주는 핵심은, 이 모든 희생 제사가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구약 시대의 희생물은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덮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양으로 오심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로 바쳐졌지만,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듯, 이 사건은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삭 대신 숫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삭은 어디까지나 더 큰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미가서 6장 6-7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7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만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짐승의 희생물로도, 심지어 사람의 자식을 드리는 것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희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희생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희생물이 되실 때에만 참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제 모리아 산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 **역대기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한다.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 위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역대기상 21장**에 그 배경이 나온다.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역병이 임하였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이다.

따라서 모리아 산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영적 의미를 가진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숫양을 드렸던 곳, 다윗이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드렸던 곳,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져 수많은 희생물이 드려졌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다.

성전이 완성된 후 **역대기하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성전을 채우시며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단순히 짐승의 희생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장차 그곳에서 이루어질 참된 속죄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그 참된 속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 바로 그 사건이 모리아 산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역시 이 모리아 산 지역에 속한다.

결국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시작하여, 다윗의 회개를 거쳐, 성전의 희생 제사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무대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실체이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명시적으로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인격,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구체적 내용을 신약 성도들처럼 명시적으로 알고 믿었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12절**에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걸어로 드러내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한 사실과 모순된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약속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살피며 탐구하였을 뿐, 그 내용을 신약 성도들처럼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까지 주어진 계시의 분량 안에서, 장차 자기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창 12:3; 22:18)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며, 특히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물을 예비하신다는 깊은 진리를

경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그 약속과 그 경험을 통해 장차 오실 구원의 날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신약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과 예표 안에서 어렴풋이 인식된 메시아의 날이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 수준의 명시적 복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계시 안에서 그가 메시아의 날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예표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곧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그 약속의 성취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그때 모리아 산에서 보인 어린양(숫양)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도 동일하게 그분이 참된 희생물이심을 증언한다.

마침내 그 실체가 역사 속에 드러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 산 일대인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선포하셨다. 이 선언은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다.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와 이레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 그 희생물이 실제로 드러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보았던 그 어린양의 그림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침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모리아 산과 이스라엘의 꿈

모리아 산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 만에 국가를 선포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성전 산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 땅은 요르단어 점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성전 산을 되찾은 것은 1967년 6월 전쟁을 통해서였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전 산에 올라 국기를 세웠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약 2,000년 만에 되찾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가 서 있다. 이스라엘이 성전 산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겉으로는 영토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성전 산이 있다.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슬람은 이곳을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믿는다. 이 두 입장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은 외교나 군사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의 소망은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로 이어지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Temple Institute라는 단체가 존재하며, 이곳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성전 재건을 준비해 왔다. 제사장이 입을 예복을 이미 제작해 두었고, 금 등잔대와 분향 제단, 제사장의 관, 악기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성경의 규격에 따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또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후손들을 찾아 훈련시키는 일도 진행하고 있으며, 성전 제사에 사용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준비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날을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어야 한다.

성경은 이 모리아 산에 앞으로 또 하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고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그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환난기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는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성전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성전은 이전의 어떤 성전보다도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자리에서, 다윗이 속죄를 드렸던 자리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신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마침내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성전 변화 그림 세로로 삽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산은 단순한 지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인류 구속의 역사가 집중되어 전개되는 중심 무대를 가리킨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 이름이,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산 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이레 사건에서 드러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숫양이 대신 희생물로 등장한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를 이루실 그 장면까지를, 여호와 이레라는 호칭을 통해 미리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곧 그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히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였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계시가 아니다. 그 진리는 이미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 사건 속에 예표로 담겨 있었으며,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침내 그 실체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후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고 계셨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이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전한 실체로 성취되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의 정점이다.